

특집 2

시애틀 공동체텃밭, 따뜻한 사회적 참여와 교류의 장

이강오 사무처장 kangolee@naver.com
서울그린트러스트



시애틀의 도시농업은 공동체텃밭으로 대표된다. 다시 말해서 시애틀의 독특한 공동체운동이 P-패치라고 하는 공동체텃밭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발전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에게 공동체텃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나눔텃밭과 푸드뱅크를 통해 식량정의, 식량복지를 실천해왔다.



1. 시애틀 공동체텃밭을 만나다

필자가 시애틀의 공동체텃밭(community garden)을 알게 된 것은 참으로 우연한 기회였다. 국토교통부 연구과제로 미국의 도시공원의 최근 경향을 읽기 위해 2011년 2월 미국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던 차에 시애틀에 머무르면서 이스트레이크 P-패치(East Lake P-Patch)라고 하는 시애틀의 독특한 공동체텃밭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곳은 서울에서 도시농화, 도시농업 활동을 하던 나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었다. 입구부터 디자인이 예사롭지 않았으며, 잘 관리된 퇴비함과 개인 사물함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창고, 목재로 경계를 만든 올림식 텃밭, 적절한 간격을 두고 배치된 수도꼭지, 겨울에도 삭막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싫증나지 않을 만큼 곳곳에 배치된 양증맞은 아마추어 예술작품들이 어우러져 있었다. 이곳은 호수를 끼고 있는 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주거지역과 바로 접해 있었다.



그림1 이스트레이크 P-패치의 입구. 출입문에 당근모양의 경첩, 버려진 자전거화분이 이채롭다

필자는 우리를 안내해준 워싱턴대학의 대만계 미국인 제프리 호우(Jeffrey Hou)교수를 통해서 그가 집필한 책 'Greening Cities, Growing Communities'을 선물 받게 되고, 2년 후 '시애틀의 도시농업 이야기-공동체와 텃밭, 그리고 지속가능 도시'라는 이름으로 번역하여 출간하게 되었

다. 이 책에서는 미국과 시애틀의 공동체텃밭의 역사, 시애틀 공동체텃밭 6개의 사례 분석, 그리고 공동체텃밭이 지속가능 도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다. 도시농업과 마을공동체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꼭 권하고 싶다. 제프리 호우 교수와의 인연으로 2012년 서울에서 환태평양 커뮤니티 디자인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고, 2013년 올해 시애틀에서 개최된 미국 커뮤니티가드닝협회 34차 총회에 참석하여 시애틀과 미국의 공동체텃밭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시애틀 공동체텃밭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필자는 도시농업이 산업화와 도시화, 심각한 빈부격차, 기후변화 대응/적응문제 등 복잡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도시농업이 어떻게 우리 사회와 연계되어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 그림은 40년 역사를 가진 시애틀 도시농업을 고찰하면서 얻은 결론이다. 이 그림을 머리속에 넣고, 시애틀 도시농업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그림2 도시농업의 사회적 연계 모식도

2. 시애틀 P-패치 공동체텃밭 현황

우리에게 이미 영국의 얼랏먼트(allotment), 독일의 클라인가르텐(clyne garden), 일본의 시민정원 등 세계 주요 국가와 도시의 도시농업이 소개되어 왔다.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이들의 도시농업을 깊이 분석해보면 다들 배울 점이 많겠지만, 시애틀의 P-패치 공동체텃밭(이하 P-패치)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전체 규모나 개인별로 분양되는 텃밭의 규모가 우리 주말농장과 매우 흡사하고, 현재의 우리 도시들이 시도하는 마을만들기, 지역재생 운동과 도시농업이 결합하여 독특한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여 왔기 때문이다. 시애틀의 P-패치 공동체텃밭이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웃들과 함께 열린 공간을 돌보면서 공동체를 만드는 활동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시애틀의 공동체텃밭은 구성원들이 소정의 비용을 내 분양한 개인텃밭을 관리하며 공동구역은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관리한다. 다음은 마을국에서 제공한 시애틀 공동체텃밭 현황자료의 일부를 발췌하여 필자의 의견과 함께 소개한다.

P-패치의 기원 1974년 피카르도(Picardo)씨의 농장에서 최초로 시작된 P-패치는 2013년 현재 84개까지 늘어나고 있다. 6,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이 공동체텃밭 프로그램은 시애틀의 대표적인 공동체운동이 되었다. P-패치라는 이름은 자투리땅의 의미를 가진 패치와 최초로 시작된 피카르도씨 농장의 이니셜 P를 결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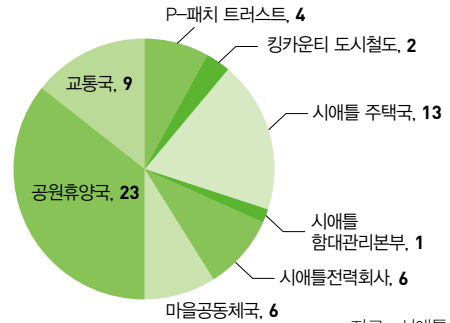


그림3 시애틀 최초의 공동체텃밭 피카르도 P-패치

운영주체 P-패치는 미국에서도 유일하게 그 운영을 시애틀 마을국(Department of Neighborhood)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마을국의 5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시정부는 공동체텃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토지접근성을 확보해주고, 관수시스템을 지원해주지만, 텃밭의 관리는 '참여자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세우는 역할만 한다'. 즉, 철저하게 주민자치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P-패치 공동체는 마을공동체국의 또 다른 프로그램인 '마을사업 매칭펀드(Neighborhood Matching Fund)'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기금을 통해 자신들의 공동체텃밭을 조성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다. 놀라운 것은 거의 모든 P-패치에서 나눔텃밭(giving garden)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푸드뱅크를 통해 자신들의 수확물의 일부를 소외된 이웃과 나누고 있는 것이다. 시애틀은 북미에서 밴쿠버와 함께 오랫동안 도시농업을 실천하고 사회운동으로 발전해온 도시이다.

토지의 지속성 도시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토지이다. 시애틀의 P-패치는 대부분 사유지나 공공시설의 유헴지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가장 많은 사례는 도시 공원에 있다. 그러나 항상 공동체텃밭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고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초기 시애틀의 도시농부들은 공동체텃밭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1974년 시작되었던 인터베이 P-패치는 골프장 개발을 이유로 두번 씩이나 자신들의 텃밭을 옮겨야 했다. 우리도 도시농업은 5년 전만 하더라도 '불법경작'이라는 딱지를 달고 있었으며, 서울시 금천구의 한내텃밭은 도시개발로 인해 내년에는 장소를 옮겨야 한다. 시애틀 P-패치는 모두 공원에 위치한 것은 아니고, 고압

선 아래 버려진 땅에 자리잡기도 하고, 주택국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부지에 자리잡기도 하고, 철도부지에 위치하기도 한다. 매우 적은 숫자이지만 개인 소유의 토지에도 P-패치가 운영되고 있다.



자료 : 시애틀시

그림4 시애틀 P-패치 토지의 소유현황(2009)

공동체텃밭의 구성 모든 공동체텃밭은 시민에게 개방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P-패치 공동체텃밭은 텃밭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 모델텃밭, 과수원, 야생동물서식지 및 토착수종 식재지역, 교육적인 게시판, 공공 이벤트와 교육을 위한 공간, 푸드뱅크의 나눔텃밭 등이다. 텃밭(garden)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명백하게 공공의 열린공간(public open space)으로 운영되고 있다.

텃밭분양과 재분양 참여자는 매년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동의서에는 '①텃밭이용료는 기본구역단위 9.3m²에 23달러이고, 더 넓게 이용하고자 할 때는 추가비용을 내야한다. ②8시간의 자원봉사¹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③자신에게 분양된 텃밭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전체를 경작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정부가 텃밭에 대한 접근성과 물 공급을 책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여자들도 공공 토지를 이용하는 대가와 공간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관리할 책임을 갖는 것이다. 시애틀

1 주로 공동체텃밭의 경관관리를 위한 봉사를 의미한다.

들에서는 최근 대기자가 늘면서 시애틀 시정부는 1인당 분양되는 텃밭의 단위면적을 줄이려고 하나, 참여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한다.



그림5 벨타운 P-패치(Bell Town P-Patch)는 여느 근린공원이나 공공정원 못지 않는 경관을 가지고 있다.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빗물투수프로젝트가 진행된 그린웨이를 따라 가다보면 눈이 번쩍 뜨이는 멋진 정원을 찾을 수 있다. 이 곳 사람들은 벨타운 P-패치를 커뮤니티가든 예술디자인의 플랫폼이라 부르고 있다. 멋진 드레스의 노신사와 귀부인들이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노숙자들이 많아 채소는 잘 심지 않고, 주로 꽃과 허브를 기르고 있다. 바다를 면하여 3채의 집이 있는데 문인들에게 장기간 빌려주는 장소란다.



그림6 업가든 P-패치(UpGarden P-Patch)은 시애틀의 유명한 니들스페이스(Needle Space)가 바라보이는 도심지역 주차장 옥상에 조성되어있다. 오래된 승용차로 정원을 만들고, 미니버스를 농기구보관소 및 사무실로 쓰이고 있다. 2대의 차량 모두 참여자들이 기부하고, 디자인한 이들 만의 작품이다. 옥상경계와 입구에는 가슴높이의 올림식 화단을 만들고, 각자의 텃밭구역에는 30cm 정도의 올림식텃밭을 조성해 놓았다. 모든 텃밭구획은 우리와 비슷한 규모로 9㎡(약 3평) 내외로 되어있다.

참여기간 전체 텃밭참여자의 기간을 분석해보면, 44%가 3년 이하, 20%가 4년~5년, 22%가 6년~10년이다. 16%는 10년 이상 활동하였다고 시애틀시 마을국은 보고하고 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텃밭경작에 참여할 수 있어, 일부 커뮤니티가든은 지나치게 노령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반면 우리의 주말농장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텃밭의 경우 안타깝게도 매년 선착순으로 재분양하고 있다. 모름지기 농사는 땅에 기반하고 있고, 그 땅을 얼마나 소중하게 가꾸는가에 따라 농사의 성과와 주변 경관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림7 이스트레이크P-패치(East Lake P-Patch)의 사물함에는 모든 참여자들의 사진이 걸려있고 이름이 새겨져 있다. 혹 시라도 텃밭에서 만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공동체 형성에 대한 노력이 엿보인다.

사회적 기여 시애틀의 P-패치는 공동체텃밭의 사회적 기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①도시농부들은 공동체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에 적극적이다. ②2009년에 12톤 이상의 음식물을 기부하였다. 9%의 도시농부가 주 1회 푸드뱅크 후원에 참여하고, 월 1회 참여하는 도시농부는 40%에 달한다. 38개의 P-패치 공동체텃밭이 '기빙가든(giving garden)'에 참여하고 있다. ③2009년 1,900명의 P-패치 도시농부가 18,853시간을 봉사하였다. 이는 9명의 상근직원의 역할과 같다. ④오래된 도시농부가 리더십의 핵심 역할을 한다. 7년 이상 오래된 도시농부들이 그룹의 리더, 그리고 농기구 관리 등 전체를 위한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 ⑤성공적인 공동체텃밭은 장기간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수년간의 유기농법을 통해서 토양이 개선되고 경관이 조성될 수 있으며, 시민들의 편리한 휴식과 이용이 가능하다. 장기적인 참여자들이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이런 공간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⑥오래된 도시농부들이 유기농법에 의한 모델텃밭을 조성하여 타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교육적 효과를 주고 있다. 지속적으로 잘 관리된 P-패치 공동체텃밭은 그 자체로 모델

밭이고 교육장이다. P-패치 도시농부들은 녹색혁명가들이다. 그들은 빗물저금통을 만들고, 친환경적인 뒷간을 만들고, 그린빌딩 재료를 생산하며, 무기/유기물을 재활용한다.

이민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공간 시애틀의 P-패치는 주로 자신의 집에 정원이나 텃밭이 없는 도심의 아파트거주자와 도시빈민층이나 이민자를 위한 정책이다. 전체 참여자의 20%가 유색인종이고, 55%가 저소득층에 속한다. 시애틀의 공동체텃밭은 정원과 경작활동으로부터 소외된 이웃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이들이 도시와 지역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공동체텃밭의 다양한 소셜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시애틀 P-패치의 핵심가치인 것이다.



그림8 그린플레이트스페셜(Green Plate Special)은 지역사회에 적응이 어려운 이민자와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텃밭활동과 요리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장소이다.

3. 잘 발달된 공동체텃밭의 지원체계

가. 복합적인 공공의 열린공간(Multi-use Public Open Space)으로서 P-패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P-패치는 단순히 농사만 짓는 곳이 아니다. 시애틀 P-패치는 도시의 오아시스로 누구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과 같은 곳이다. 떨어진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를 통합시키는 커뮤니티센터이다.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환



그림9 브래드너가든파크(Bradner Garden Park)는 개발위기에 처한 공원부지를 주민운동으로 지켜낸 사례로 시애틀 공동체텃밭의 상징과 같은 존재이다. 주민들이 직접 공동체텃밭과 정원과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커뮤니티센터로서 발전시켰다. 1987년에 조성되었으며 전체 면적은 1,331㎡이고, 43개의 텃밭구획이 있고, 토착수종과 유실수가 심어져있다. 이곳의 대표인 조이스 모티 여사는 P-패치 트러스트 단체의 현재 회장이기도 하다. 그녀는 1980년대 공원에정지였던 이 땅이 주택 개발 위기에 처했을 때 지역주민과 함께 보호운동을 하였으며, 스스로 텃밭공원으로 바꾸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 텃밭공원에는 농구장도 있어, 청소년들의 체육활동과 텃밭이 함께한다. 건축적으로도 아름답고 파티를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고, 시애틀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 상을 받은 데코타일로 만든 예술적인 화장실이 있다. 예술과 문화가 결합된 이 커뮤니티가든은 지역의 이웃들을 텃밭으로 초대하고, 커뮤니티가든의 공공성을 높여준다.

경교육의 장이다. 청년들의 고용기회를 주고 노인들의 건강한 여생을 돌보는 도시의 솔루션이다. 소외된 계층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복지센터다. 지역주민과 지역예술가의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문화공간이다. 이처럼 시애틀 P-패치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복합적이면서도 대중에게 열린공간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지역의 대학과 설계가 등 다양한 전문가 지원이 있었고, 시애틀시와 의회의 정책·제도·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맡은 비영리단체들이 있다.

나. 시애틀시 마을국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시애틀시에는 마을국이 있어 공동체텃밭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다. 마을국에는 P-패치 프로그램 외에도 매칭펀드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원휴양국과 주택국에서 공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국에서는 ‘2,000가구 당 1개의 공동체

텃밭’이라는 목표를 세워 관리하고 있다. 시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공동체텃밭의 확보를 위한 재정확보, 도시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시애틀시는 2차레에 걸쳐 공원녹지 특별세 ‘레비(levy)²’를 걸었다. 2001년~2008년에 1차로 걷은 프로파크 (Pro Parks) 레비에서는 주민의 50%가 동의아래 1억 9천 8백만 달러를 모아서 공원 및 공동체텃밭의 조성관 리, 리모델링에 투자하였다. 2008년 2차 파크엔드그린스페이스(Parks and Green Space) 레비에서는 59%의 주민동의를 얻어 3억 달러의 재정을 확보하여 공원과 공동체텃밭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공원특별세의 일부를 공동체텃밭의 조성관 리와 운영에 집행하였음은 당연하다. 이 밖에도 시애틀시는 2008년에 지역식량행동정책(Local Food Action Initiative)을 채택하고, 2010년에는 도시농업의 해를 선포하는 등 도시농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2 레비(Levy)는 기본 재산세에 붙는 일종의 특별 재산세로 미국에서 최근 10년간 여러 도시에서 시도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다. 워싱턴주립대학의 교수와 학생 그리고 디자인전문가들

시애틀 공동체텃밭의 디자인은 진행형이다. 처음부터 공간을 모두 설계하고 시공하지 않으며, 시 정부는 접근성만 확보해주고, 참여자들이 직접 공간을 만들어간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을 활용한 다양한 쉼터를 만들기도 하고, 자신의 텃밭공간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디자인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공간디자인, 이웃들에게 매력적이고 여럿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많은 P-패치는 워싱턴주립대학의 건축학과나 조경학과와 교수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기도 하고, 지역의 디자인회사와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참여자 공동체가 기금을 확보했을 경우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의 자원봉사 디자인 사례가 많다. 어떤 때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이를 모금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한다. 워싱턴주립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은 이민자를 위한 통역사가 되기도 하고, 참여자들이 공동체텃밭 의사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주민참여의 방법과 가치를 몸소 배우고으로서 P-패치는 학생들의 훌륭한 실습장이 된다.

라. 중간지원조직 : P-패치 트러스트, 시애틀 경작자들, 상추링크

시애틀의 도시농업 중간지원조직은 40년간의 활동 속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발전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시애틀 청년텃밭활동(Seattle Youth Garden Works)이라는 단체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워싱턴 자생식물협회(Washington Native Plant Society)가 공동체텃밭에 자생초화류를 지원하고 경관관리를 돕고 있다.

P-패치 트러스트(P-Patch Trust)



1979년에 설립되어 시애틀 P-패치 운동의 가장 핵심

주요 역할

1. 토지확보
토지가 필요한데 시정부가 이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직접 매입하여 보전하고 공동체텃밭을 조성하는 비용을 지원
실제 P-패치 4곳의 전체나 일부를 소유 중
2. 텃밭공동체 키우기 지원
이민자와 저소득층에게 텃밭이용료를 지원, 텃밭공동체의 활동을 위한 기금 지원, 마켓가든을 육성
3. 소통을 위해 'P-패치 포스트' 발행
'P-패치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을 계절별로 발행하고 흠어져 있는 84개 공동체텃밭의 소통의 창구 역할 수행
4. 활동지지
시와 의회 그리고 여러 계층의 도시 리더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애틀의 도시농업과 공동체텃밭을 지원
5. 경작활동에 필요한 도구를 지원
매년 도구 구입을 위한 기금지원
6. 리더십을 키우기
70명이 넘는 P-패치의 리더를 위한 미팅을 주선하고 서로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류

시애틀 경작자들(Seattle Tilth)



1978년에 설립된 '시애틀 경작자들' 모임은 주로 아이들과 성인들의 텃밭교육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의 미션이 '사람들이 우리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지키고, 정익롭고 지속가능한 지역식량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교육하고 영감을 심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애틀의 대부분 P-패치에는 시애틀 경작자들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상추링크(Lettuce Link)



1988년부터 솔리드그라운드(Solid Ground)라는 단체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신선한 먹거리를 기르고 나눔으로서 지역의 먹거리체계를 혁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시애틀의 저소득층 가족에게 경작활동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선하고 영양많은 유기농 채소와 씨앗을 공급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27.4톤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공급하였다고 한다.

4. 시애틀 공동체텃밭의 미래

시애틀의 도시농업은 공동체텃밭으로 대표된다. 다시 말해서, 시애틀의 독특한 공동체운동이 P-패치라고 하는 공동체텃밭을 탄생시키고 발전시켜왔다. 발전의 과정에서 이들은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에게 공동체텃밭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오고, 지역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한 나눔텃밭과 푸드뱅크를 통해 식량정의, 식량 복지를 실천해왔다. 이러한 전통은 시애틀 P-패치를 그들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주었다. 최근에는 건강과 관련한 의제들을 자신들의 공동체텃밭과 결합시키고 있으며, 아직은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도시수준에서 혹은 마을단위에서 지역먹거리체계를 만드는 일을 시도하고 있다. 시애틀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먹거리행동계획(Food Action Plan)을 발전시키고 있다. 담당은 환경과 지속가능발전국(Office of Environment & Sustainability)에서 하지만, 건강과 복지부터 에너지와 도시계획까지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월례 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40년의 역사를 도식으로 표현해보면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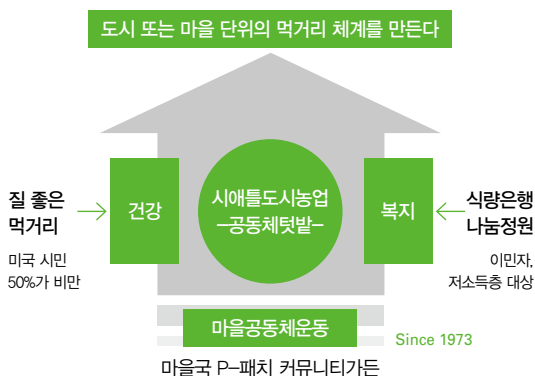


그림14 시애틀 도시농업의 발전과정

시애틀 도시농업의 미래는 ‘지역먹거리체계 만들기’로 향하고 있다. 공동체텃밭 운동에서 출발하여, 복지와 건강의 영역과 결합했고, 이제 마을과 지역의 먹거리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끝으로 시애틀 시의원 법률전문위원으로 15년간 활동을 해온 필리스 술만의 인터뷰 내용으로 시애틀 P-패치 공동체텃밭과 도시농업의 얘기를 가름하고자 한다.

“시애틀은 전통적으로 공동체운동과 주민참여가 아주 강한 곳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은 공원과 공동체텃밭과 같은 공간에서 야외활동을 매우 사랑합니다. 또 미국 내에서도 시애틀은 매우 긍정적인 이민정책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커뮤니티가든에서 이웃을 만나고 사귀게 됩니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는 워싱턴 주정부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강력히 제재하고 있어 도시주변의 농장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배경이 시애틀 먹거리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 시장(Mayor)의 먹거리문제에 대한 인식과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수년간 일본의 쓰나미와 같은 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와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시민을 지켜내야 합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량안전이죠. 아시다시피 이런 위기의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시애틀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도시(Carbon Neutral City)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도시가 꿈같은 얘기입니다만, 식량은 생산, 운송, 저장에서 많은 CO₂를 배출하기에 로컬푸드를 먹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먹거리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점점 커져가는 비만과 같은 현대병과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입니다. 비만과 아토피 등 현대병의 많은 원인은 먹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



그림15 워싱턴주립대학 서점에 있는 지속가능성과 식량정치학 문고. 식량과 도시 농업 관련 도서가 꽉 채우고 있는 현장은, 북미의 도시농업 트렌드를 정확히 보여 주고 있다.

먹거리를 먹으면 이러한 질병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죠. 더 나아가 먹거리정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성과를 만들어오지는 못하였지만, 커뮤니티가든이나 거리의 에더블 디자인(Edible Design, 먹을 수 있는 디자인)과 같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 김동주, 2004. 도시농업 조사·연구보고서.
- 서울시, 2012. 서울시 도시농업정책 자료집.
- 서울시, 2013. 제2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 이강오, 2013. 시애틀의 도시농업이야기.
- Peter Ladner, 2012. The Urban Food Revolution.
- 미국커뮤니티가드닝협회 홈페이지(www.communitygarden.org)
- 서울그린트러스트 홈페이지(www.sgt.or.kr)
- 시애틀시 마을국 홈페이지(www.seattle.gov/neighborhoods/ppatch)